

# 2008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이지하(경북대)

1. 들어가며
2. 새 자료 소개
3. 작품론, 일반론
4. 소설사적 연구
5. 비교문학적 연구
6. 현대화 및 실용화 관련 연구
7. 나오며

## 1. 들어가며

2008년도의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학회의 기획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7-18세기 고소설과 생활사(한국고소설학회), 전통시대 중원지역 문화의 문학지리학적 고찰(한국고전문학회), 19세기 한국의 언어·문학·문화(국어국문학회), 조선시대 여성의 어문생활(한국고전여성문학회) 등에서 발견되는 2008년 학계의 두드러진 경향은 이전에 비해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생활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기적인 구분이나 지역적 구분을 통해 보다 집중된 논의를 펼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하게 될 다수의 논문들도 이러한 동향을 반영한 가운데 성립된 것이라 하겠다.

2008년도에 고전소설 분야에서는 20여 권의 단행본<sup>1)</sup>을 비롯하여 140여 편에 이르는 논문이 연구 업적으로 제출되었다. 단행본의 경우 다수가 박사 학위논문을 출간한 것이거나 기존에 논문이나 저서로 발표되었던 것들을

1) 이는 번역서를 제외한 수치이다.

다듬어 재수록한 것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자료의 집성이나 해제 관련 저서 및 문헌학적 연구를 표방한 저서가 다수를 차지하여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개별 논문들에서는 연구 시각이 다각화되고 연구 제재도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을 나누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면의 한계와 필자의 부족함으로 인해 모든 연구를 다 다루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 2. 새 자료 소개

2008년에 새로 소개된 작품들은 주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필사되거나 간행된 것들이다. 성균관대에 소장된 2권 2책의 영웅소설 <유장옥전>은 “대한광무십년병오납월이십일일필초”라는 필사기를 지니고 있어 1906년 필사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방언 표기와 서로 다른 필체가 섞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경상도 지역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필사된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영웅소설의 유형을 따르면서도 당대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던 장편가문소설, 판소리계 소설 등의 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후기 소설사의 장르 간 혼효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sup>2)</sup>

1928년 德興書林에서 간행한 <병인양요>는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에 쳐들어온 프랑스군을 격파한 韓聖根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전기소설이자 역사영웅소설이다. “一名韓將軍傳”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이 작품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병인양요를 다룬 현존 유일의 소설작품으로서 국내 역사소설의 다양한 문학적 지평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임과 동시에 19세기 후반 인물인 한성근 장군에 대한 부족한 사료를 보충하면서 사실의 문학적 형상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sup>3)</sup>

2) 장경남, 「새 資料 <유장옥전> 研究」, 『어문연구』 1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장경남, 「<유장옥전>의 서사 구조와 소설사적 의미」,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3) 이민희, 「구활자본 고소설 <병인양요> 연구」, 『어문연구』 56, 어문연구학회, 2008.

새로 발굴된 한글 필사본 <백규지>는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본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번역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대 재자가인소설인 원본 <백규지>와 비교할 때 인명, 지명 등의 착오와 표기법 상의 오기가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다른 국역본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한 전사본이라 여겨진다. 이 번역본은 원전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백화소설의 체제 중 서사 전개와 무관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있다.<sup>4)</sup> 明末부터 우리나라에 대다수 작품이 유입되어 탐독된 것으로 확인되는 재자가인소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목록으로만 확인되던 작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의 수용 양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이 자료 발굴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계명대 동산도서관 收藏 고전소설의 전체적 면모를 소개한 논의도 있다.<sup>5)</sup> 이에 의하면 동산도서관에는 영웅소설 23종, 장편가문소설 17종, 애정소설 12종 등 총 83종 284책의 소설이 수장되어 있다. 이 중 유일본이거나 희귀 이본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김이양문록>, <김태백전>, <자녀혼가전>, <원자실기>, <화산증봉기>, <효경전> 등을 들 수 있다. 논문 저자는 동산도서관에 소장된 작품들 중 가문소설이 다수인 반면 판소리계 소설이 소수인 점 등을 규방문화가 발달했던 대구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시키고 있다. 소설 향유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 작용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동산도서관 소장 자료를 구체적 지역의 향유물로 취급하는 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소장 경위 및 출처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다수는 아니지만 해마다 새 자료에 대한 소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소설사의 공백 부분을 채우고, 양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4) 박계연,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의 전래와 수용: 새로 발굴된 『백규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51,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5) 김준형,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전소설의 현황과 가치」, 『한국학논집』 3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3. 작품론, 일반론

#### 3.1. 작품 유형별 연구

고전소설의 여러 유형 가운데 2008년도에 집중적 조명을 받은 분야는 전기소설과 국문장편소설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이 두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전기소설 분야에서는 문체나 서사 기법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 논문들이 두드러진다. 박일용은 <취유부벽정기>의 삽입시들을 살펴 홍생과 기씨의 詩가 동일한 대상을 노래하면서도 각기 다른 세계인식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밝히고, 이들이 각각 절의를 지키기 위해 떠돌던 시절과,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절의를 새롭게 성찰하면서 현실 참여를 고민하던 시절의 김시습의 모습에 대응된다고 하였다.<sup>6)</sup> 이 외에도 <금오신화>의 문체에 주목하여 내용적 특질뿐 아니라 문예적 특질을 재발견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금오신화>를 읽어내고자 한 전성운<sup>7)</sup>이나 <최치원>의 대화들이 독자를 인정의 세계로 이끄는 장치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황혜진,<sup>8)</sup> <최척전>의 작가가 보다 효과적이고 흥미롭게 서사를 전개하기 위해 중국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탁월한 작품화 능력을 보여준다고 한 민영대<sup>9)</sup> 등의 논의처럼 작품 내용뿐 아니라 문체나 기법적인 면에서 보다 폭넓게 작품 해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전기소설의 서사적 의미를 분석한 논문들의 경우 주로 애정의 문제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현양은 <주생전>이 ‘주생과 배도’ 사이의 조건적인 사랑과 ‘주생과 선화’ 사이의 진정한 사랑을 복합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위계화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중세적 질서와 탈중세적 지향의 대립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는 상대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최근

6)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삽입시와 서사 구조」,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7) 전성운, 「문체적 측면에서 본 『금오신화』의 지향과 의미」, 『어문논집』 27, 민족어문학회, 2008.

8) 황혜진, 「<최치원> 남녀 대화의 양상과 특성」,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9) 민영대, 「<최척전(崔陟傳)>에 나타나는 중국적 요소와 작자의 의도」, 『한국언어문학』 66, 한국언어문학학회, 2008.

주목을 받고 있는 19세기의 애정전기소설 <포의교집>에 대해서는 천민여성이면서 자아실현을 위해 남성중심적 선비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선망했던 여주인공 초옥의 비극성을 지적한 논의<sup>11)</sup>와, 서술자의 시각이 사족 남성의 보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주인공 초옥이 당대 권력가에게 기생하는 殘班 향유층의 위안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논의<sup>12)</sup>가 있었다. 전자가 여주인공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모순에 주목하였다면, 후자는 이를 당대 사회 구조 및 향유층의 의식과 관련시키고 있어 두 편의 논문이 상보적인 맥락 안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듯하다.

국문장편소설 분야에서도 다수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최근 국문장편소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다수의 연구업적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나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나 새로운 시각에서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기존 논의와 대동소이한 결과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주로 연작 관계를 따지거나 작품의 서사 구조를 통해 의미를 추출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이 경우 도출되는 결론들이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신성이 떨어진다. 고전소설 전반이 강한 유형성을 보인다는 점과 아직 본격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들의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연구결과마저 상투적이라는 오명을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그 중 차충환의 논의는 발췌본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통해 국문장편소설의 수용 상황을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sup>13)</sup> 고찰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수의 국문장편소설 중 일부 내용을 뽑아 베껴 한 권의 필사본으로 만든 것인데 발췌한 부분들이 여성인물이나 여성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당대 여성 독자들의 수용의식을 드러내주는 자

10) 김현양, 「<주생전>의 사랑, 그 상대적 인식의 서사」, 『열상고전연구』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11) 이월영, 「<포의교집> 연구」,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학회, 2008.

12) 이정원, 「<포의교집>의 서사적 성격」, 『어문연구』 1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13) 차충환, 「고전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자들의 작품 수용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료로서 주목될 만하다. 이와 더불어 <옥련몽>과 <옥루몽>의 개작 양상을 다룬 논문도 관심을 끈다.<sup>14)</sup> 여성인물의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 개작의 방향이 인물의 개성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는 발전적 면모를 보이거나 이러한 인물의 형상화가 궁극적으로는 가부장제 하 남성 위주의 판타지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소설사의 전개에서 자주 발견되는 기법적 측면에서의 성장과 의식적 측면에서의 보수화라는 상충적 요소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히 19세기의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분화되어 간 소설의 면모와 그 이유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위의 두 유형 외에는 특정 분야에 여러 편의 연구가 집적된 경우는 없고 분야별로 개별적인 연구 성과들이 나와 있다. 그 중 『태평한화골계전』에 실린 <月團團>이 15세기의 초기소설로서 현실주의적 문맥 속에서 서사를 구성하고 있어 전기소설과는 다른 흐름을 보인다는 점과 통속적 취향을 가미하여 여타의 애정소설과는 구별되는 효과를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한 정길수의 논의<sup>15)</sup>와 『한중록』의 이본 및 관련 자료들을 섭렵하여 이 작품의 전체적인 면모를 재구성하고 종합적인 논의를 시도한 정병설의 논의,<sup>16)</sup> 그 간 주로 사회적인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우화소설의 구비문학적 요소에 주목하여 당대 민담과 연행예술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적인 반영의 측면을 포착한 김엽선의 논의<sup>17)</sup> 등이 관심을 끈다.

### 3.2. 주제적 연구

주제적 차원의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될 수 있지만 최근의 동향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性を 매개로 하여 논의를 진행시키는 방법과 인물 형상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므로 이 두 가지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4) 유광수, 「<옥련몽>에서 <옥루몽>으로 개작된 여성 인물의 양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15) 정길수, 「<月團團>의 창작의식과 작품 성격,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16) 정병설, 「<한중록> 신고찰,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17) 김엽선,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향유기반,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性を 통해 작품을 재해석해보려는 시도들은 궁극적으로 성리학적 이념의 억압성과 인간의 본성 문제, 남녀의 차별 문제 등을 건드리게 된다는 점에서 작품의 주제나 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性に 대한 관심이 소설 연구에 접목된 초기에는 주로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과 남녀 차별, 이에 대한 여성적 자각 등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성적 욕망과 당대 사회의 규범이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며 소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등으로 논의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다.

17세기의 전기소설에서性は 남녀의 성차를 드러내는 문화기호로 작용하는데 남성의 경우 성적 충동과 본성에 충실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성과 사랑이 욕망이나 쾌락의 차원이 아니라 생애를 주관하는 요소로 인지되었다.<sup>18)</sup> 이러한 현상은 비단 17세기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김현감호>나 <최치원> 등의 초기 소설을 포함하여 전기소설 일반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남성 작가의 가부장적인 욕망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sup>19)</sup> 19세기 한문소설에 이르면 성에 대한 유교적 통제가 약화되고 남녀의 정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해지지만 남성이 성적 욕망을 제약 없이 표현했던 데 비해 여성의 경우 여전히 유교적 이념에 강하게 구속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성담론을 통한 진근대성의 해체가 불균형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이와 같은 성담론은 궁극적으로 작가층의 여성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작품의 여성형상화를 통해서 중세적 가부장제의 자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대부 지식인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sup>21)</sup>

인물의 형상화는 작품 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요소이면서 인물의 성격 창출이나 인물간 갈등 구도 등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전달한다는 점에

18) 최기숙, 「17세기 서사문학을 통해 본 “성”의 문화 기호와 상상 구조」,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19) 이상구, 「고소설에 나타난 성적 욕망과 정절」,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20) 김경미, 「한국한문학과 성담론: 조선 후기 성 담론과 한문소설에 재현된 섹슈얼리티」,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21) 이지하,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여성형상화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서 소설 연구에서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 2008년의 경우 평면적인 인물 연구를 넘어서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거나 작가의도와 인물형상화의 불일치 문제, 인물형상과 사건구도의 부조화 문제 등 보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인물론을 펼친 논의들이 돋보인다.

이강엽의 경우 ‘짜페인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워 <홍부전>, <옹고집전>, <구운몽>, <양반전> 등의 인물을 분석하고 있다.<sup>22)</sup> 그에 의하면 이러한 짜페인물을 통해 고전소설 인물론에서의 이분법적 선악론을 넘어설 수 있으며 짜페인물이 등장하는 고전소설이 이질적인 삶의 양면을 통합하는 수준 높은 주제의식을 구현하고 있다고 한다. 이승복은 <옥환기봉>의 인물형상이 작가의식 및 창작 동기를 담아내는 양상을 살피고 인물의 형상화가 반드시 작가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이러한 불일치나 파탄으로 인해 속편이나 파생작을 통한 논쟁이 야기되었음을 지적하였다.<sup>23)</sup> 장유정의 석사학위 논문에 의하면 <추풍감별곡>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의 이행기적 사회상을 반영하여 인물형상에 있어서도 근대성을 획득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근대적 방식의 조력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며, 인물형상의 대중성으로 인해 문면에서 강조되는 효과 열의 교화적 측면이 약화되고 흥미적 요소가 부각되었다고 한다.<sup>24)</sup>

### 3.3. 소재적 연구

최근의 연구 동향 중 두드러지는 것이 소재적인 측면에서의 다채로움이다. 그간의 논의가 주제적 차원에서 작품의 의미와 지향성 등을 밝히는 데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 소재적 차원의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각에서 작품에 접근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일상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미시적 차원의 연구가 활발해진 것

22) 이강엽, 「고소설의 “짜페(double)” 인물 연구」, 『고소설연구』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23) 이승복, 「<옥환기봉>의 인물 형상과 작가의식」, 『고전문학과 교육』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24) 장유정, 「<추풍감별곡>에 나타난 인물형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8.



과도 관련될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소설 연구를 다각화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작품의 내재적 의미나 미적 특질을 규명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소재적 차원에 머물고 말 위험성도 있다는 점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공간에 대한 관심이다. 서사의 진행에 있어서 시공간적 배경이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공간설정을 통해 구현되는 작가의식 및 시대 의식의 함의를 읽어내려는 시도는 새로운 시각으로 고전소설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남악형산, 동정호, 군산, 소상강 등 중국의 호남지역이 빈번히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sup>25)</sup> 이에 의하면 우국충정이나 열절 등으로 상징되는 지역적 표상이 작품의 주제 및 인물의 행위에 부합하기 때문에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옥수기>에서는 이념적 표상으로서의 공간 대신 작가 개인의 취향과 동경이 강하게 반영된 공간으로서의 중국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대 이행기적 중국 배경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논의도 있다.<sup>26)</sup> 이지영의 경우에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 우리나라 금강산이 등장하는 사실에 주목하였다.<sup>27)</sup> 그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구조 속에 우리나라의 금강산이 끼어들면서 발생하는 양면적 모순을 포착하고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교양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작가가 구체적 공간을 서술하고자 한 욕구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그 외 妖藥, 놀이, 기생, 자살, 노년 등을 다룬 다양한 소재론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 중 ‘놀이’의 속성과 미적 요소에 주목하여 놀이가 서사 전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놀이의 유형을 나누고 <옥루몽>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놀이의 구체적 양상을 살핀 이민희의 논의<sup>28)</sup>는 놀이가 문

25) 권순규, 「한국 고소설과 중국 호남(湖南)지역」,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26) 탁원정, 「<옥수기>에 형상화된 異國, 중국」,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7) 이지영, 「중국 배경 대하소설에 나타난 금강산의 의미: <유이양문록>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4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28) 이민희, 「고소설 삽입 ‘놀이’의 서사적 역할과 의미 연구」,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화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착목이라 하겠다. 하지만 놀이가 행해지는 일상적 차원의 소개에서 더 나아가 놀이 모티프의 작품 내적 기능과 사회사적 의미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탐구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妖藥’이라는 소재가 대하소설의 통속화 과정과 극적 서사의 구성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핀 한길연의 논의<sup>29)</sup>는 색다른 소재를 통해 작품의 구조와 사회사적 의미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의 시도라 하겠다. 서신혜는 ‘노년’에 주목하여 <옥루몽>에서 노년이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형태의 여유로움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작가의 소망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노년의 삶에 대해 진지하고 구체적인 고민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sup>30)</sup>

### 3.4. 서사 기법 연구

소설이 문예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도의 전략과 기술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전소설이 어떤 서사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2008년도에 제출된 기법적 측면의 논의는 주로 국문장편소설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그간 이 분야에서 주류를 이루어온 갈등구조나 주제 중심의 연구를 벗어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국문장편소설의 총체적 면모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서사 기법은 작가의 능력 및 의도와도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그 중 김문희의 경우 <조씨삼대록>을 대상으로 삼아 사전제시와 詳述의 유형적 서술, 대화, 보여주기 등의 서사 기법이 소설의 내용을 짐작하여 읽기 쉽도록 하면서도 다성적 의미 구현과 분석적 독서 유도를 통해 향유층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흡인력을 발휘하는 전략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sup>31)</sup> 조혜란은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삼아 묘사, 대화, 삽입문

29) 한길연, 「대하소설의 요약(妖藥) 모티프 연구」,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30) 서신혜, 「古小說을 통해서 본 老年의 概念과 그 삶의 形象化 방식」, 『어문연구』 1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등을 통한 ‘보여주기’ 서술이 구체성과 현장성을 확보하여 독자의 능동적 독서과정을 유도할 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과시하는 통로가 되어줌으로써 상층의 교양미 추구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sup>32)</sup> 두 논자가 서로 다른 작품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법적 특징이나 기능 및 효과 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는 국문장편소설이 유형적으로 공유하는 기법적 특질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분야 관련 논의의 축적을 통해 국문장편소설의 서사 기법에 대한 일반론의 전개가 가능해지리라 기대해본다.

국문장편소설 이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기법 연구 중에는 우언의 담화 원리로 <양반전>을 해석한 조경은의 논의가 주목된다.<sup>33)</sup> 이 글에서는 텍스트 내의 담화구조를 분석하여 <양반전>이 외전이라는 글쓰기 방식, 양반이라는 용어의 이중적 자질 등을 위시한 여러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이 현실에 대한 메타주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 3.5. 이본, 유통 관련 연구

2008년도에 이루어진 이본 연구는 한 작품군의 전체 이본을 아울러 계열을 나누고 특징을 살펴 이본 전체의 양상을 종합하는 방향보다는 계열 이본을 중심으로 보다 치밀한 고증을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선본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연세대 소장 목판 49장본 <임경업전>이 경판 방각본이 아닌 관각본일 가능성을 살핀 경우,<sup>34)</sup> <홍계월전> 이본들을 면밀히 대조하여 한중연 45장본 계열과 단국대 103장본 계열로 나눈 후 후자를 대표본으로 선정한 경우<sup>35)</sup>, <취미삼선록> 계열의 이본 다섯 종류를 검토하여 천리대본을 선본으로 확인한 경우<sup>36)</sup> 등이 이에 해당한다.

31) 김문희,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32)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33) 조경은, 「우언의 담화 원리와 <양반전>의 해석」,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34) 이윤석, 「<임경업전> 목판본 49장본에 대하여」, 『溯上古典研究』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35) 정준식, 「<홍계월전> 이본 재론」,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

이에 비해 아직 소개되지 않았던 경북대 소장본을 포함하여 <박씨전> 이본 41종을 대상으로 계열을 분류하고 상관관계를 밝혀 여성영웅소설의 면모를 지닌 초기의 1계열과 <임경업전>의 내용이 첨가, 확대된 2,3,4 계열을 나눈 서혜은의 논의<sup>37)</sup>는 이본 전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핀 경우라 하겠다. 이 밖에 한문소설인 <주생전>과 <위생전>의 국역본을 검토 대상으로 삼아 국역이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중반 사이에 궁중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 논의도 있다.<sup>38)</sup>

최근 몇 년간 소설의 출판이나 유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중요한 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2008년도의 이 분야 연구 동향은 유통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보다는 그간 이루어진 논의를 토대로 종합적 의미를 도출하거나 유통 과정 이면의 동인이나 지향성, 의식 등을 살펴보려는 특징을 보인다. 류준경은 방각본을 대상으로 문예 오락적 성격의 소설 방각본과 교양 실용적 성격의 비소설 방각본을 나누고, 소설 방각본이 새로운 소설을 간행하지는 못하고 기존의 필사본을 간행하는 선에 그쳤지만 문자문화의 확대를 통해 근대적 개념의 대중 독서문화를 견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sup>39)</sup> 정병설은 천주교 교리서와 『신미록』의 구체적 예를 통해 한글·출판의 성장이 사회적 변혁을 추동하였음에 주목하고, 방각본의 유통이 한반도를 하나의 정보공동체로 만들면서 근대적 개념의 민족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지적하였다.<sup>40)</sup>

위의 두 논문이 방각본 유통의 전반적인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면 최진형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미시적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는 방각본과 활자본으로 출간된 <토끼전> 작품군을 대상으로 하여 경판본과 완판본, 활자본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sup>41)</sup> 그러한 차이는 ‘안정성 추구’

36) 소인호,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8.

37) 서혜은, 「<박씨전> 이본 계열의 양상과 상관관계,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38) 간효윤, 「『국역본 <주생전>·<위생전>』 고찰: 표기적 특징과 이본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39) 류준경,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출판,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40)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2008.

41) 최진형, 「출판문화와 <토끼전>의 전승, 『관소리연구』 25, 관소리학회, 2008.

라는 상업적 목적 아래 다양한 출판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야기된 것이라고 하겠다. 서혜은의 경우에는 경관 방각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대중화 배경과 양상, 대중성이 내포하는 사회의식 등을 살피고 있다.<sup>42)</sup>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세책 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일본동양문고본 소장 세책본 소설들의 배집지 형태로 발견된 세책대출장부의 기록을 바탕으로 세책으로 유통되던 작품의 제목과 대출자 및 대출 관련 정보들을 소개한 것이다.<sup>43)</sup> 이 논문의 경우 세책 현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자료 정리의 차원에 머물러 문화사적 의미를 해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한편 20세기 중반 경북지역의 고전소설 향유 양상을 살피고 강독사들의 소설 연행을 소개한 논문이 있어 주목된다.<sup>44)</sup> 이에 의하면 신소설이 나오면서 고전소설이 밀려났으리라는 예상과 달리 경북 북부의 농촌 지역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 고전소설이 놀이문화의 하나로 강독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적 향유보다는 집단적 향유가 우세했다고 한다. 강독은 마을이나 문중 등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비상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강독사들은 자신만의 강독 기교를 지니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강독사도 상당수 발견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조사하여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통해 20세기의 소설 향유 상황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 4. 소설사적 연구

그간의 소설사 연구에 있어서 제일 논쟁적이면서도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소설의 발생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2008년에도 소설의 발생 시기에

42) 서혜은, 「경관 방각소설의 대중성과 사회의식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3) 전상욱, 「세책 대출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동양문고본 대출장부를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44) 권미숙, 「20세기 중반 고전소설의 향유 양상: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대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신재홍은『화랑세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백운제후>, <설씨녀>, <화왕계>, <미륵선화>, <비보랑전>류 등의 작품이 역사적 사실을 허구적으로 윤색한 소설임을 살피고, 소설사의 초기를 신라중기인 6-7세기로 끌어올리자고 하였다.<sup>45)</sup> 이 제안은 사실과 허구의 문제, 역사적 사건 발생 시기와 허구화가 진행된 시기의 격차 문제, 『화랑세기』의 진위 문제 등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지만 적극적인 차원에서 소설사 전개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윤세순은 간행본과 필사본의 존재 양상을 통해 17세기의 소설사적 국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17세기에 <오륜전전>, <진등신화> 등의 중국소설과 전기류, 필기야담류 등의 서사물이 간행되었는데 이들은 거의 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류의 간행이 소설문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문헌상의 기록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기에 방각본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리라 보았다.<sup>46)</sup> 한편 17세기 사대부들이 즐겨 읽었던 전기소설류나 규방여성들을 독자로 삼은 국문소설들의 경우 필사본으로 유통되었는데 아직 소비자 지향적이기보다는 생산자 지향적이며, 여성의 문자 생활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sup>47)</sup>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17세기의 소설사적 위치가 어떠한지를 정리하는 부분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논의의 방향성이 불분명해지고 말았다. 즉 논자의 조사에 따르자면 17세기의 소설 간행이나 필사 상황은 아직도 초기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는 듯한데 그러면서도 방각본의 존재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이 시기 소설의 발달 정도를 가늠하는 데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위의 논의가 소설의 간행이나 향유라는 작품외적인 문제들을 통해 소설사를 바라보고자 했다면 이외는 다른 각도에서 작품내적 요인을 통해 소설사의 전개를 파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17세기 소설사에서 ‘악인’의 형상

45) 신재홍, 「『화랑세기』를 통해 본 초기 소설사의 양상」,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46) 윤세순, 「17세기, 간행본 서사류의 존재양상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학회, 2008.

47) 윤세순, 「17세기 필사본 소설류에 대하여」,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선악의 대결과 복선화음의 구조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되고, 이를 통해 인간심리의 보편적 성향에 부응하는 본격적인 소설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의 형상화가 가능할 수 있었던 시대적 요인은 士禍와 政爭, 戰亂 등으로 대표되는 16,7세기의 현저한 정치사회적 격변이라고 보았다.<sup>48)</sup>

18세기의 소설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여 남북 간의 시각 차이를 지적한 논의가 제출되었다.<sup>49)</sup> 이에 의하면 북한의 신간 『조선문학사』에서는 18세기 소설에 대한 서술 분량을 대폭 늘린 가운데 국문 대형식의 소설, 판소리계 소설, 한문소설의 세 가지로 유형을 분류하고 부녀자들의 관여로 국문소설의 발달이 촉진되었음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삼한습유>, <육미당기> 등 19세기의 작품을 18세기 작으로 취급하거나 <옥루몽>과 <육미당기>의 저자를 남구만과 김재육으로 파악하는 점, 인민성을 작품 평가의 기준으로 강조하는 점 등에서는 남한과 다른 시각을 보인다고 한다.

장효현의 경우 소설사를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를 미시적으로 살펴 그 의의와 한계를 따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sup>50)</sup> 『조선소설사』는 시대구분의 적절성과 한글소설을 지표로 설정한 점, 동아시아 구도 속에서 거시적 시야를 확보한 것, 작자 및 형성시기 추정, 작품 평가의 적절성 등에서는 의의를 지니며, 장르론적 인식의 부족이나 유형의 일관성 결여, 부분적 사실에서의 오류, 과도한 평가 등에서는 한계점을 노정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김태준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고전소설사 서술에 있어서 새로운 전망을 세우기 위해 반성과 자각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8) 정환국,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49) 차충환, 「최근 북한 고전소설론의 비판적 이해-18세기 소설사를 중심으로-」, 『태릉어문연구』 15,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8.

50) 장효현,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그 의의와 한계」,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8.

## 5. 비교문학적 연구

최근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을 중심으로 비교문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당대 문화교류의 양상을 반영하여 연구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국내적 시각을 넘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학사의 흐름을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록 소수 이기는 하지만 연구과제 수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비교의 목적이나 성과가 불분명한, 비교를 위한 비교를 행하는 경우도 있어 비교문학적 연구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 반성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보인다.

2008년도의 비교 연구는 거의 중국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소설사의 전개에서 중국의 영향을 재확인하고 그 수용 양상이나 독자적 특질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전기소설과 관련된 부분에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어 <전등신화>나 그 영향을 받은 중국 소설과 <금오신화>를 비교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우선 <만복사저포기>를 <전등신화> 수록 작품들과 비교한 논의를 들 수 있다.<sup>51)</sup> 이에 의하면 <만복사저포기>가 문장과 소재의 측면에서는 <전등신화> 수록 애정전기소설의 영향을 받았으나 ‘고독’과 ‘머뭇거림’ 등의 미적 특질과 윤리와 정절에 대한 중시 등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1906년에 창작된 <홍낭전>이 <전등신화> 소재 <금봉채기>를 상당 부분 차용한 점으로 미루어 <전등신화>가 20세기 초까지 우리 소설에 영향력을 미쳤음을 지적한 논의도 있다.<sup>52)</sup>

<금오신화>를 <剪燈餘話>의 애정전기와 비교한 연구도 있다.<sup>53)</sup> 명초 李禎이 지은 <剪燈餘話>는 <전등신화>로부터 직접적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금오신화>와 창작시기가 더 가깝다. 동일한 작품의 영향 아래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양국의 작품을 비교하여 소재와 구성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작가의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51) 엄태식, 「『전등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본 <만복사저포기>」,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52) 조재현, 「<홍낭전>과 『전등신화(剪燈新話)』 소재(所載) <금봉채기(金鳳釵記)> 비교 연구」,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53) 김수연, 「『금오신화』와 『전등여화』의 애정전기 비교 연구」,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전기소설의 변화양상을 포착하고자 한 데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등신화>를 비롯하여 명대에 유행한 ‘新話’류 소설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러한 소설이 조선에 수용되어 인기를 끌게 된 이유를 살피고, 이 유형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현실적 주제 의식이 <금오신화>에도 계승되고 있음을 주장한 논의도 있다.<sup>54)</sup> 비교 논의의 대상을 확장시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아시아 문학사의 변모 양상을 살피고자 한 의도는 바람직하나 <금오신화>와의 비교 부분이나 우리 소설사에서 전기소설의 변모 양상을 논하는 부분 등에서는 구체적 근거 제시가 추가되어야 논의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보인다.

이 외에 중국의 여협서사와 소약란 고사가 우리 소설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 논문들도 있다. 安錫徹의 <劔女>는 중국의 여협서사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중국 협녀의 형상과 비교할 때 사대부를 경계하고 감발시킨다는 점과 협행과 성정체성 간에 갈등을 겪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한다.<sup>55)</sup> 또한 서경희에 의하면 중국 전진 시대의 소약란에 대한 고사는 여성의 재능을 대표하는 이야기로서 국내의 문예물에도 다양하게 수용되었는데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자들에 의해 의미가 부연 확장되면서 <소약란직금회문록>이라는 소설로 재창조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sup>56)</sup> 이와 같은 논의들은 중국의 이야기가 국내의 소설 전통과 결합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포착함으로써 중국과의 영향 관계에서 국내적 요인의 적극적 역할을 재확인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편 영향 관계와는 무관하게 양국 간 비교를 통해 우리 작품의 특질을 확인하고 국가 간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소재적인 차원에서 인물출생담을 중심으로 한·중 고소설의 차이점을 살펴 降生譚과 轉生譚을 각각의 특징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문화적 전통과 세계관의 차이를 논한 경우<sup>57)</sup>와, <춘향전>과 원잡극 <竇娥怨>을 비교한 경우<sup>58)</sup>를

54) 이시찬, 「明代 ‘新話’類 소설의 소설사적 의미」,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회, 2008.

55) 강혜규, 「삽교, 安錫徹의 劔女 연구-女俠敘事 전통의 계승과 변용-」,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08.

56) 서경희, 「소약란 고사의 국내 수용 양상과 <소약란직금회문록>의 이본 전승 연구」, 『은지논총』 20, 은지학회, 2008.

57) 최길용, 「한·중 고소설의 인물탄생담 비교 연구-강생담과 전생담을 중심으로」, 『고소설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문화론적 차원에서의 비교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인정되나 양국의 특질로 대표되는 것들이 국가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 시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거리가 있는 판소리 작품과 원극 작품을 비교하는 당위성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보인다.

유일하게 일본과의 비교를 행한 논의로 <박천남전>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다.<sup>59)</sup> 이 논문은 비교 연구를 통해 그간 창작소설로 알려졌던 <박천남전>이 <韓文日本豪傑桃太郎傳>이라는 일본 작품을 원본으로 하여 번안된 작품임을 밝혔다.

## 6. 현대화 및 실용화 관련 연구

고전의 현대화를 통해 대중에게 새롭게 다가가려는 의식의 변화와 문화산업화에 부응하여 고전작품을 실용화하려는 실제적 욕구 등이 결합하여 고전작품을 재해석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창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고전소설 연구의 영역에서도 수년 간 이에 대한 점검과 모색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2008년도에도 세 편의 석사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는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우선 특정 고전소설을 재해석하거나 매체를 변환하여 재창작한 작품들을 원전과 비교한 연구들이 있다. 성현자는 영화 <장화, 홍련>이 소설 <장화홍련전>을 서사구조, 서술, 인물형상화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용하였는지를 살피고, 그 의의와 한계를 논하였다.<sup>60)</sup> 전근대적 고전소설이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됨으로써 대중적 욕구와 시대적 욕망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점과 영화로서 독보적 영상미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는

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58) 이태복, 「<춘향전(春香傳)>과 원잡극(元雜劇) <두아원(竇娥冤)>의 비교연구」, 『한국언어문화』 3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59) 강현조, 「번안소설 <박천남전(朴天男傳)> 연구」,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60) 성현자, 「소설 모티프의 차용과 변용—소설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의 경우」, 『비교문학』 45, 한국비교문학회, 2008.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소설의 영상화에 있어 감독의 주관적 관점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닌다고 한다. 조광국은 겹사돈 구성을 지닌 TV드라마가 고전대하소설과 연계성을 지니면서도 현대적 상황에 맞게 변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sup>61)</sup> 심치열은 황석영의 <심청>이 고전소설 <심청전>의 전통적인 서사 장치를 계승하면서도 심봉사의 제거, 주요 모티프의 해체,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요소의 소멸 등에서는 원 텍스트의 전복을 꾀하였으나 양자의 조화를 통해 고전을 긍정적으로 재창조했다고 평가하였다.<sup>62)</sup>

문화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주로 영웅소설이 논의의 중심에 올랐다. 먼저 고전여성영웅소설과 인터넷여성영웅소설을 비교하여 그 계승 양상을 살펴보고 여성영웅이 출현하게 된 사회문화적 동인을 검토하여 고전이 인터넷 공간에서 문학적 가치를 재생산해낼 수 있음을 강조한 학위논문이 제출되었다.<sup>63)</sup> 이 논문이 양자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도라면 이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개발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안기수는 영웅소설의 게임콘텐츠화 방안에 대해 캐릭터, 아이템, 공간 등의 구체 항목별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다.<sup>64)</sup> 그러나 실제 작품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한편 문학치료의 관점에서 고전소설의 효용성을 검토한 경우도 있다.<sup>65)</sup> 이 논문은 <이춘풍전>이 문학치료적 가능성을 지닌 작품임을 분석하고, 실제로 부부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춘풍전>을 읽고 상담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구체적 임상을 실행한 사례를 담고 있다.

이처럼 고전문학의 현대적 변용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데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인문학적 본질에 대한 원론적 검토 역시 지속

61) 조광국, 「고전대하소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본 TV 드라마의 서사 전략과 주제: 겹사돈 구성을 지닌 <머느리 전성시대>와 <황금신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62) 심치열, 「<심청전>의 또 다른 이야기 형상화」, 『돈암어문학』 21, 돈암어문학회, 2008.

63) 김홍실, 「고전영웅소설과 인터넷 여성영웅소설의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4) 안기수, 「영웅소설의 게임 콘텐츠화 방안 연구」, 『우리문학연구』 23, 우리문학회, 2008.

65) 나금자, 「<이춘풍전>의 문학 치료적 효용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되어야 올바른 방향성을 잃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 7. 나오며

이상으로 2008년도 고전소설 분야의 연구 업적들을 살펴보았다. 전년도에 이어 역주서와 자료집들이 꾸준히 출간되는 가운데 연구 영역에서도 새로운 자료를 발굴 소개하거나 이본의 검토를 통해 선본을 확정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일차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한다. 여러 연구자들의 노고에 의한 검증과정을 거쳐 선본들이 확정되고 자료에의 접근이 수월해지면 자료 선정으로 인한 시간과 공력의 낭비를 덜게 되어 다른 측면에서도 연구의 심화, 확장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최근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을 꼽으라면 생활사적 관심에 기반한 미시적 연구를 들 수 있다. 거대담론 위주의 연구사 풍토를 쇠퇴시키고 작고 일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지향성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거대담론으로 귀결되는 전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파편적인 논의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소재적 측면의 개별 연구들이 문화론적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결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고전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자칫 산업적인 잣대에 의해 인문학 본연의 자세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간호윤, 『고전서사의 문헌학적 탐구와 현대적 변용』, 박이정, 2008.
- 곽정식, 『한국 고소설 연구의 시각과 방법』, 신성출판사, 2008.
- 권순규, 『고전소설의 교육과 매체』, 보고서, 2008.
- 김광순, 『한국고소설사와 론』, 새문사, 2008.
- 김재웅, 『강릉추월진 작품군의 종합적 이해』, 보고서, 2008.
- 민관동, 『중국 고전소설의 출판과 연구자료 집성: 한국편』, 아세아문화사, 2008.
- 박기석, 『연암소설의 심층적 이해』, 집문당, 2008.
- 박순임·김창원, 『장서각 수집 국문고전소설 시가 및 실기류 해제(장서각 연구총서7)』, 민속원, 2008.
- 서종문, 『판소리와 신재효 연구』, 제이앤씨, 2008.
- 신해진, 『권척과 한문소설』, 보고서, 2008.
- \_\_\_\_\_, 『서류 송사형 우화소설』, 보고서, 2008.
- 양승민, 『고전소설 문헌학의 실제와 전망』, 아세아문화사, 2008.
- \_\_\_\_\_, 『한문소설의 통속성』, 보고서, 2008.
- 윤채근, 『한문소설과 욕망의 구조』, 소명출판, 2008.
- 이문성, 『필사본 춘향전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보고서, 2008.
- 임향란, 『한중재자가인소설류 비교연구』, 한국학술정보, 2008.
- 최재우, 『기재기어의 특성과 의미』, 박이정, 2008.
- 최진형, 『서사문학과 문화담론』, 보고서, 2008.
- 최천집, 『조선후기 진가확인형 소설의 형성기반과 서사세계』, 한국학술정보, 2008.
- 한중고전소설인명 지명대사전 편찬연구팀, 『한중고전소설 연구자료의 새 지평』, 채륜, 2008.

## 2. 학위논문

## &lt;박사학위논문&gt;

- 권미숙, 「20세기 중반 고전소설의 향유 양상: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수연, <화씨충효록>의 문학적 성격과 연작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8.
- 김용기, 「인물 출생담을 통한 서사문학의 변모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서혜은, 「경관 방각소설의 대중성과 사회의식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임정지, 「한국 고전소설의 애정유형과 변화양상 연구: 애정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정영신, 「<尹河鄭三門聚錄>의 혼사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주형예, 「19세기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기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석사학위논문>

- 김선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자살 모티프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 김엽선, 「조선 후기 우화소설의 향유기반」,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홍실, 「고전영웅소설과 인터넷 여성영웅소설의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나금자, 「<이춘풍전>의 문학 치료적 효용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 류합합, 「한글소설의 발생 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길희, 「훤절소설에 나타난 기생의 형상」, 순천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송주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속이기의 서사기법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왕효경, 古典小説의 現代的 變容樣相研究: <春香傳>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영임, 「<채봉감별곡> 연구: 갈등과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이홍란, 「낙선재분 <서주연의>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유정, 「<추풍감별곡>에 나타난 인물형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최지우, 「<현씨양옹 쌍린기>와 <하진양문록>의 비교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 정기간행물 소재 논문

- 간호윤, 『국역본 <유생던>·<위생던>』 고찰: 표기적 특징과 이본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강상순, 「<구운몽>에 형상화된 남녀관계의 소설사적 계보와 역사적 성격」,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 강현조, <금낭이산(錦囊二山)> 연구, 『현대소설연구』 3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 \_\_\_\_\_, 「변안소설 <박천남전(朴天男傳)> 연구」,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 강혜규, 삼교 安錫徽의 劔女 연구-女俠敍事 전통의 계승과 변용-, 『한국한문학연구』 45, 한국한문학회, 2008.
- 권순금, 한국 고소설과 중국 호남(湖南)지역,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권혁래, 근대 초기 설화·고전소설집 『조선물어집』의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언어문학』 64, 한국언어문학회, 2008.
- \_\_\_\_\_, 「<김영철전>과 해로사행(海路使行)의 수용양상」, 『우리어문연구』 31, 우리어문학회, 2008.
- \_\_\_\_\_, 「17세기 동아시아 전란의 소설적 수용양상」,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_\_\_\_\_, 「한국한문학과 성담론: 조선 후기 성 담론과 한문소설에 재현된 섹슈얼리티」,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김문희,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김미란, 「<박씨전> 재고」,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김수연, 「『금오신화』와 『전등여화』의 애정전기 비교 연구」,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 김승호, 「조선 후기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信佛과 寺庵의 기능」, 『어문연구』 57, 어문연구학회, 2008.
- 김영주, 「<배비장전>의 풍자구조와 그 의미망」, 『판소리연구』 25, 판소리학회, 2008.
- 김엽선, 「조선 후기 우화소설 <두껍전>의 구비문학적 특성」, 『고전과 해석』 4,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8.

- 김정예,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속 변신의 의미」, 『전통어문연구』 20,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8.
- 김중균, 「조선후기 서사문학의 해외진출 소재 연구」,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김준형,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전소설의 현황과 가치」, 『한국학논집』 3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_\_\_\_\_, 「18세기 도시의 발달과 소설 향유의 면모」,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김진영, 「〈보심록〉의 구조적 특성과 문학적 가치」,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학회, 2008.
- 김창룡, 「가전과 소설의 結構」, 『한성인문학』 6,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2008.
- 김현양, 「〈주생전〉의 사랑, 그 상대적 인식의 서사」, 『열상고전연구』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 김현주, 「가문소설 투기대목의 화소결합방식과 유형화」,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김현화, 「〈최생우진기〉의 禪小說의 美學」, 『어문연구』 57, 어문연구학회, 2008.
- 나금자, 「〈이춘풍전〉의 문학치료적 효용 연구: 춘풍 처의 서사변화를 중심으로」, 『태릉어문연구』 15, 박이정, 2008.
- 류준경,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출판」,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 민영대, 「〈최척전(崔陟傳)〉에 나타나는 중국적 요소와 작자의 의도」, 『한국언어문학』 66, 한국언어학회, 2008.
- 박은정, 「〈옥환기봉〉 연작의 갈등 구성 방식 및 주제의 변주 양상」, 『한민족어문학』 52, 한민족어문학회, 2008.
-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삽입시와 서사 구조」,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박재연, 「조선시대 재자가인소설의 전래와 수용: 새로 발굴된 『백규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51,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 박진아, 「진가확인구조의 양상과 그 역할 연구-취둔갑설화와 <옹고집전>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4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 서경희, 「소약란 고사의 국내 수용 양상과 <소약란직금회문록>의 이본 전승 연구」, 『온지논총』 20, 온지학회, 2008.
- 서신혜, 「古小說을 통해서 본 老年의 概念과 그 삶의 形象化 방식」, 『어문연구』 1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서은아,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해 본 <장화홍련전>과 <장화, 홍련>」, 『태릉어문연구』 15, 박이정, 2008.



- \_\_\_\_\_, <열녀함양박씨전>의 박씨와 『삼강행실도: 열녀편』의 관계를 통해 본 열녀 제작의 심리적 요인, 『고전문학과 교육』 1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서혜은, 「<박씨전> 이본 계열의 양상과 상관관계」,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성현자, 「소설 모티프의 차용과 변용-소설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의 경우」, 『비교문학』 45, 한국비교문학학회, 2008.
- 소인호, 「<추미궁성산록>의 이본 특성과 축약 양상」, 『청람어문연구』 38, 청람어문교육학회, 2008.
- \_\_\_\_\_, 「<취미삼선록> 이본 연구」,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8.
- 송재용, 「<춘향전> 인물의 의식세계 일고찰」, 『동양고전연구』 31, 동양고전학회, 2008.
- 신경숙, 김지혜, 「고전소설의 스토리텔링 기법 연구: 드라마 <향단전> 분석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27,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8.
- 신재홍, 「『화랑세기』를 통해 본 초기 소설사의 양상」,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심우장, 「<장화홍련전>에 나타난 죽음의 제의적 해석」,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학회, 2008.
- 심치열, 「<심청전>의 또 다른 이야기 형상화」, 『돈암어문학』 21, 돈암어문학회, 2008.
- 안기수, 「영웅소설의 게임 콘텐츠화 방안 연구」, 『우리문학연구』 23, 우리문학학회, 2008.
- 안미영, 「<이학사전> 연구: <홍계월전>과 <정수정전>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문학연구』 27,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2008.
- 엄태식, 「『전등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본 <만복사저포기>」,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오윤선, 「<박문수전>에 나타난 “박문수”의 인물형과 고전서사물에서의 변이양상」, 『우리어문연구』 31, 우리어문학회, 2008.
- 왕매용, 「<황부인전> 구조 연구-과제 제시와 해결 구조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한국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 유광수, 「<옥련몽>에서 <옥루몽>으로 개작된 여성 인물의 양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윤보운, 「<권익중전>의 구조를 통해 본 작가의식 고찰」, 『한국언어문학』 64, 한국언어문학학회, 2008.
- 윤세순, 「17세기 간행본 서사류의 존재양상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 사학회, 2008.

- \_\_\_\_\_, 「17세기 필사본 소설류에 대하여」,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 윤채근, 「조선 후기 남성醜절 서사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의 양상-정념(情念) 담론에서 이익(利益) 담론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 이강엽, 「고소설의 “짝패(double)” 인물 연구」,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이강욱, 「『동야취집』의 중국 필기소설 전유와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48, 한국문학학회, 2008.
- 이규훈, 「<옥낭자전> 주인공의 성격 및 여성 의식」, 『청람어문연구』 37, 청람어문교육학회, 2008.
- 이기대, 「시아버지에 의한 며느리 박해의 소설화 양상」,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2008.
- 이민희, 「고소설 삽입 ‘놀이’의 서사적 역할과 의미 연구」,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_\_\_\_\_, 「구활자본 고소설 <병인양요> 연구」, 『어문연구』 56, 어문연구학회, 2008.
- 이병철, 「임제의 <원생몽유록> 재고」, 『한민족문화연구』 24, 한민족문화학회, 2008.
- 이상구, 「고소설에 나타난 성적 욕망과 정절」,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이상일, 「<사씨남정기>에 나타난 선악 대립 구조와 비평적 가치화 방법」, 『국어교육연구』 42, 국어교육학회, 2008.
- 이승복, 「<옥환기봉>의 인물 형상과 작가의식」, 『고전문학과 교육』 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이시찬, 「明代 ‘新話類’ 소설의 소설사적 의미」, 『동방한문학』 36, 동방한문학회, 2008.
- 이영택, 「<소현성록>에 나타난 세대간 인물들의 역할과 텍스트의 구조에 따른 주제적 의미」, 『한국어문학연구』 27,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2008.
- 이월영, 「<포의교집> 연구」, 『한국언어문학』 67, 한국언어학회, 2008.
- 이윤석, 「<임경업전> 목판본 49장본에 대하여」, 『泂上古典研究』 28, 열상고전연구회, 2008.
- 이정원, 「애정 전기소설사 초기의 서사적 성격-『대동운부군옥』에 실린 『수이전』 일문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_\_\_\_\_, 「<포의교집>의 서사적 성격」, 『어문연구』 1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이지영, 「<문장풍류삼대록>에 나타난 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 『장서각』 19, 한국

- 학중앙연구원, 2008.
- \_\_\_\_\_, 「중국 배경 대하소설에 나타난 금강산의 의미: <유이양문록>을 중심으로」, 『어문논총』4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 이지하, 「19세기 한문장편소설의 여성형상화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 \_\_\_\_\_,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이태복, 「<춘향전(春香傳)>과 원잡극(元雜劇) <두아원(竇娥冤)>의 비교연구」, 『한국언어문화』 3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 장경남, 「고소설의 異物交購談 수용 양상과 의미」, 『우리문학연구』 23, 우리문학회, 2008.
- \_\_\_\_\_, 「새 資料 <유장옥전> 研究」, 『어문연구』 1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_\_\_\_\_, 「<유장옥전>의 서사 구조와 소설사적 의미」,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 \_\_\_\_\_, 「2007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국문학연구』 18, 국문학회, 2008.
- 장진숙, 「<옥소선 이야기>의 전변양상과 그 서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 장효현,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그 의의와 한계」, 『우리어문연구』 33, 우리어문학회, 2008.
- 전상욱, 「세책 대출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동양문고본 대출장부를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전성운, 「문체적 측면에서 본 『금오신화』의 지향과 의미」, 『어문논집』 27, 민족어문학회, 2008.
- 정규식, 「謫降型 <두껍전>과 爭長型 <두껍전>의 상관관계-“적강형”과 “필사본 계열 쟁장형”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정길수, 「<月團團>의 창작의식과 작품 성격」,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 · 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2008.
- \_\_\_\_\_, 「<한중록> 신고찰」,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정준식, 「<김희경전>과 <육미당기>의 상관성: 남장결연담을 중심으로」, 『한국어문논총』 48, 한국문학회, 2008.

- \_\_\_\_\_, 「<홍계월전> 이본 재론」,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
- 정환국,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 \_\_\_\_\_, 「고전소설의 환상성, 그 연구사적 전망」, 『민족문학연구』 37, 민족문학사학회, 2008.
- 조경은, 「우언의 담화 원리와 <양반전>의 해석」,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조광국, 「고전대하소설과의 연계성을 통해 본 TV 드라마의 서사 전략과 주제: 겹사돈 구성을 지닌 <며느리 전성시대>와 <황금신부>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_\_\_\_\_, 「<유이양문록>의 작품세계-서사구조와 결연장애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조재현, 「<홍낭전>과 『전등신화(剪燈新話)』 소재(所載) <금봉채기(金鳳釵記)> 비교 연구」,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조현우, 「<雍固執傳>과 ‘自我 同一性’ 문제」, 『어문연구』 1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차충환, 「고전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자들의 작품 수용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8.
- \_\_\_\_\_, 「최근 북한 고전소설론의 비판적 이해-18세기 소설사를 중심으로-」, 『태릉어문연구』 15,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2008.
- \_\_\_\_\_, 「<취승루>의 문학적 성격 연구」, 『어문연구』 57, 어문연구학회, 2008.
- 최기숙, 「17세기 서사문학을 통해 본 “성”의 문화 기호와 상상 구조」,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최길용, 「한·중 고소설의 인물탄생담 비교 연구-강생담과 전생담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최윤희, 「<남가록>의 유형성 탐색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 최진형, 「출판문화와 <토끼전>의 전승」, 『판소리연구』 25, 판소리학회, 2008.
- 최천집, 「<천군전>의 심성론적 성격과 의미」, 『동방학』 15,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8.
- 탁원정, 「<옥수기>에 형상화된 異國, 중국」,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한길연, 「대하소설의 요약(妖藥) 모티프 연구」,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_\_\_\_\_, 「영웅소설과 대하소설의 주인공의 환상 체험의 차이와 그 의미」, 『한국문화』 4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8.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과 서술시각」, 『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허원기,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과 연암소설(燕巖小說)」,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홍현성, 「〈詞場白戰誌〉 연구」,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황혜진, 「〈윤지경전〉의 가치 갈등과 그 문학적 의미」, 『겨레어문학』 40, 겨레어문학회, 2008.
- \_\_\_\_\_, 「〈최치원〉 남녀 대화의 양상과 특성」,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